

(사)다나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다나 청년봉사단과 스리랑카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함께 땀을 흘리고 격려하며 우정을 쌓았다.

스리랑카 학생들에 미소 선물…“한국문화로 전한 희망”

(사)다나, 스리랑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 봉사 현장

1월 3~10일, 한국문화 교류·체험
초등학생·청년 등 총 14명 동참해
켈리니아 학생도 통역·봉사 함께
320명 대상 한복 입고 사진 ‘인기’
사원 참배로 스리랑카 화합 기원

스리랑카=김내영 기자

“What’s your name(이름이 뭐니)?”
“How old are you(몇 살이니)?”

(사)다나 청년봉사단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자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얼굴 생김새도 말하는 언어도 다른 이방인들의 방문이 내심 기분 좋은 모양이다. 호기심 많은 스리랑카 아이들과 어색한 첫 만남도 잠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된 청년봉사단과 스리랑카 아이들. 덥고 습한 날씨에도 얼굴엔 환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다.

사단법인 다나(대표 탄경 스님)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함반도타 노나가마(Nonagama) 농촌 마을의 웰리파탄울라(Welipatanwula) 초등학교에서 ‘지구촌 평화기행-아유보완 얄루웨! 안녕 친구야!’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된 다나의 해외봉사활동은 한국문화교류로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다나 청년봉사단의 활동 총괄은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이 맡았으며, 마힌다 스님(스리랑카)과 해마 스님(다르마라자 주지)이 현지 운영을 물심양면 지원했다. 강재선 (사)다나 이사와 홍수민 봉사단장 등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14명의 봉사단원은 궂은일도 솔선수범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특히 스리랑카 켈리니아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재학생·졸업생 7명이 통역·봉사 등 전 일정을 함께해 스리랑카와 한국 간 교류·소통에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봉사기간 동안 스리랑카 어린이 320여 명을 대상으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5가지 부스 활동, 가족사진, 한국영화 상영, 단체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탄경 스님은 “풍요 속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다나 청년봉사단원들)이 스리랑카라는 낯선 나라에서 불편함마저 감내하며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용기를 냈다”며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배워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자신의 사진을 찾으며 흐뭇해 하고 있다.


봉사단원과 아이들이 함께한 줄다리기.


한복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1월 4일 아침. 노란색 다나 조끼를 입은 봉사단원들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에 들어서자 학생과 선생님들은 태극기와 스리랑카 국기를 연신 흔들며 춤과 노래로 환영했다. 학생들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다다랐다. 봉사단은 부처님께 향과 꽃, 과일, 쌀, 등, 차 등 육법공양을 올리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첫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혀 사진을 찍어 주는 ‘다나 사진관’이 운영됐다. 한복은 남·여 크기별로 총 40여 벌이 준비됐다. 한복의 화려한 색에 매료된 아이들이 길게 줄을 이었고, 봉사단은 2명씩 조를 짜 학생들의 한복 입고 벗기를 도왔다. 사진을 담당한 봉사단원은 한복을 입고 다소곳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지역주민들까지 큰 관심을 보여 활동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숙소에 돌아온 봉사단원들에겐 달콤한 휴식 대신 또 다른 추가 활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낮에 찍은 한복 사진을 프린터로 인쇄하고 종이 액자에 넣는 작업이다. 아이들에게 줄 칫솔 치약 포장도 함께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힘을 냈다.

체험활동이 열리는 5일. 학생들에게 오전 9시까지 학교로 오라고 공지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엔 아이들로 북적였다. 기다리는 아이들에 마음이 조급해진 봉사단은 빠르게 부스를 설치하고 물품을 정리했다. 부스는 심폐소생술과 구강 교육,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뱃지 만들기, 카드 뒤집기 게임, 가족사진관 등 5개가 꾸려졌다. 10명씩 팀을 꾸린 학생들은 차례대로 부스를 돌며 각각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구강 교육은 스리랑카 마둘켈(Madulkelle) 병원의 수술전문의가 맡았다. 의사 깃(30) 씨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를 닦고 관리해야 하는지 실습을 통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신경 써 줘 고맙고, 이런 활동에 참여해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뱃지 만들기는 단연 아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부처님, 태극기 등을 그린 몇몇 학생들이 수준 높은 그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신디(12) 학생은 “태극기를 처음 보고 색이 너무 예뻐서 따라 그려봤다”며 “학교에서 행사가 열린 것도, 외국인을 만난 것도 처음인 데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돼 신난다”고 전했다. 5가지 부스 체험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는 합장주가 선물로 전달됐다.

6일에는 청홍 2팀으로 나눠 단체 ‘큰 공 굴리기’ 체육대회를 열었다. 각 팀 4명씩 줄을 서 몸집보다 큰 공을 굴렸고, 청팀의 공이 결승선에 들어오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이긴 팀에겐 막대 사탕이 주어졌다. 2차전은 줄다리기로 실력을 겨뤘다. 남성부와 여성부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였다. 다나 청년봉사단원들이 각 팀에 흡수돼 힘을 보탰고,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결의를 다진 홍팀이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다.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첫날 찍은 사진을 배분했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찾으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스리랑카 문화를 배우는 기회도 있었다. 다나 청년봉사단원들은 1월 7일 다르마라자 사원에 모여 스리랑카 전통음식인 달커리와 삼볼을 직접 만들고, 손으로 식사해 보면서 어울림의 장을 펼쳤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스리랑카 불교에서 중요한 성지 중 한 곳인 켈레니아 사원을 참배하기도 했다. 보리수나무, 탑, 와불상 앞에 꽃을 공양하며 스리랑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6박 8일의 대장정은 마무리됐다.

김지우(14) 다나 청년봉사단원은 “사촌 누나를 따라 처음 봉사활동을 왔는데 스리랑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 뿌듯했다. 색다른 환경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니 우리 문화에 대해 더욱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및 총무원장 도현성원(용주사)

원로원장 원성(다인사) 원로위원 덕산(회룡사)
중앙종회의장 서암(암천사) 감사원장 지현(유은정사)
호계원장 선혜(은혜사) 사정원장 보원(극락암)

서울교구원장 지연(지연정사) 충북교구원장 무광(대청사)
충남교구원장 삼현(용화사) 부산교구원장 무루지(진불사)
전북교구원장 법향(지장사) 전남교구원장 혜안(유정정사)
경남교구원장 부성(은혼사) 비구니회장 화심(관음사)
법사단회장 금강심(금강사) 법사단부회장 세연(현선사)

국장 아랑(보현정사) 지현(해월신당)
정수(청암사) 영매(영영당)
유경(별궁) 나혜(매화신당)
도희(수성신당) 동인(백천정사)



대광불교 조계종에서 종도님 모집합니다.
스님 법사님 등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634-19 전화 055-391-0413 팩스 055-391-9951

금륜재 생천도 지도자 모집

♧ 우리사찰을 살립시다 ♧

금번 삼성고불강원에서는 조선시대에서 행해져 온 금륜제를 발굴 복원하여 옛 화려했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자 교육행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말살 되었던 소중한 문화의식을 신도들의 자손과 가족을 위하는 복된 신앙을 되찾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문화는 우리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혹자는 신통이 불교가 아니라는 어리석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편협한 무지에서 온 생각 입니다. 대승경전의 부처님의 설법이 거짓이란 법문인가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손들을 위해 칠성전에 복을 빌고 자성을 밝히는 인연 도법이였습니다.신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지도했으며 스님들은 도를 수행했던 것이죠! 신도는 자손과 가정의 안녕을 위하고 주지스님은 복과 덕을 베푸는 행사 였습니다. 항간에는 주지스님들께서 절 운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신앙 행태가 급변한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안타까움 결과라고 봅니다.

금륜재는 사찰을 꽃피우고 신심을 고취하며 화기애애한 생기를 가져오는 활기찬 행사이며 삶을 융성하게 할 도법 입니다. 많은 사찰에서의 열정을 갖고 기도 하는 이가 있어 번득이는 경계가 있어 지혜가 와도 상의할 선지식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게도 공부에 진전 없이 사라져가는 인재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여 이런분들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금륜재는 약칭 칠성기도법은 흥겨운 장엄한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도를 닦아(행선) 얻는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업연의 영가에 작난인 진퇴양난을 다스리고 참다운 불자로 개과천선시켜 무한 지혜를 터득하게 해야하며 기복신앙에만 억매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국의 사찰을 살려야 합니다.그러므로 기대하는바 관심 있으신 사부대중이 있으시다면 동참하시기를 적극 추천들이며 금륜재 지도법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면서 미래불교를 위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금륜보계치성광 여래불 · 좌보처일광변조소재보살
우보천월광변조식재보살 · 북두대성칠원성군

금륜재 의식과 신통무
- 1부:칠성각=칠성청 예불및 천문의식.
- 2부:칠성무와 108신통법.

공부내용
♧자기를 발견 한다.
♧가족의 성품을 안다.
♧이웃의 마음을 읽는다.
♧사회의 움직임을 간파한다
♧정치인들의 방향을 안다.
♧국가의 미래를 안다 등.

칠성무
※선남자가 춤을 추며 정진하는 춤을 신선무라 하고,
※선여인이 춤을 추며 공부하는 춤을 선녀무 합니다.
※진정 신선과 선녀의 춤이죠.
※법구 장단에 마춰 춤을 추며즐겁게 도를 얻는다.

♧**칠성 무는 자성 인연 연기법.**
※금륜천재 교육이수 시현 후 사찰 운영제정 보장.
※본원에서는 주지스님 이상에게만 금륜제를 전수합니다.
※본 금륜재는 40년여년 고행의 결과로서 정립된 문화의식이니 놓치지 마시고 사원의 생기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후속108 신통수련
7일 자성체험기도. 100일 신통수련.
1일 생 천도 실시. ☆전통 가사복식 제현.

금륜당 화엄 010-7387-2833 | 대한불교삼성고불대학